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해 조합-시공사 갈등 줄인다

정비사업 공사비 둘러싼 갈등 예방 위해 검증기구 확대... 검증기구 'SH공사'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영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공사비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았던 실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구성·운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사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난 둔촌주공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에 파견함으로써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공사비 검



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 없는 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시는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

질병관리청, 만성콩팥병 환자 진료비 10년 사이 두 배 증가

2023.3.9. 질병관리청 대한의학회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



질병관리청은 3월 9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임춘수) 등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를 개발하여 발표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질병'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11%(남자 10.4%, 여자 11.8%)가 만성콩팥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8.4%이며('21년 기준),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26.5%였다.

최근 10년간 만성콩팥병 진료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비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849만 원 수준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대한의학회 등 8개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수칙('12년 제정)을 기반으로 개정수칙을 마련했다.

개정된 수칙은 만성콩팥병 관련 여러 학·협회의 전문가들이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고려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

수칙은 일반인과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7개 항목과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3개 항목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로 실천방법 설명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예방관리수칙으로는 정기적인 검진, 고위험질환(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관리, 싱겁게 먹기 등 건강생활실천 내용이 포함됐다.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 개정 및 개발 자문위원회 오국환 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만성콩팥병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당뇨병, 고혈압 환자 또는 만성콩팥병 환자 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콩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콩팥병은 질병부담이 높고 관리가 어려운 질환으로,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실천하기를 당부한다"면서, "질병청은 만성콩팥병 장기추적조사 등을 통해 환자의 예후 개선 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화 하고, 일차의료임상진료지침, 예방관리수칙 실천방법 설명자료 등 일반 국민들이 만성콩팥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 홍보자료는 질병관리청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개정 수칙을 홍보하고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올바른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O/X 퀴즈'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소방, 더욱더 촘촘한 산불예방활동에 총력!

산불예방 순찰 및 홍보활동 강화, 화재 현장대응체계 구축



경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더욱 촘촘한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금까지 35건(1.1~3.7.기준)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더 이상의 산불은 없어야 된다는 각오로 더욱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산림화재 취약지역 예비 및 홍보활동 강화 △산림화재 대비 태세 확립 △산림화재 현장 대응 체계 구축 △지자체 정보 공유 및 산불 대비 공조체계 강화 등이다.

먼저, 도내 산림 인접 2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일 2회 사이렌 취명, 산불조심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인접지역 시설물과 산림 간 잡목 등 제거활동을 신속히 실시한다.

또 산림 내 문화재·전통사찰에 대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생리용품 지원 대상: 만 13~18세 여성청소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품목: 생리대, 생리컵, 생리패드, 생리통, 생리대용량기, 생리대용량기용량기, 생리대용량기용량기

신청기간: 2023.03.12. ~ 2023.03.31. (월요일 제외)

신청처: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교육지원센터

문의: 120 (국립중앙도서관, 120)

본문기사 5면 계속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인점포 범죄 ZERO...영등포구, 지역사회와 손잡고 아이들 보호 나서



영등포구가 신학기기를 맞아 무인점포 관련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아크로타워스퀘어 주민회의실에서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문방구 등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2021년 관내 92개소였던 무인점포가 2023년 2월 기준 164개소로 78.3% 증가했으며, 3회 이상 절도가 발생한 고위험 무인점포도 7개소에 이른다.

구는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무인점포 점주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점포 집중 순찰 ▲아동 계도 ▲무인점포 출입 시스템 설치 및 CCTV 경고문 부착 등 아동·청소년 절도 사건 예방과 무인점포 한계를 극복하는 자구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아크로타워스퀘어 상가 내 무인점포 2개소에 양심거울을 설치해 잠시 나쁜 마음을 먹었던 아이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 절도욕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실제로 관내 한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양심거울 부착 후 2021년 3건인 절도 범죄가 0건으로 줄어든 효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구는 영등포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초·중·고 및 주거지역 주변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문방구 내 양심거울, 절도 예방 출입문안내판을 설치하고 범죄예방퀴즈상자, 범죄 예방 디자인의 비닐봉투를 비치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또한 새 학기를 맞아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인점포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인점포 등 범죄 취약환경을 적극 개선해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진/기자

박남서 영주시장, 이철우 도지사 만나 핵심현안건의

'영주댐 조기준공' 등 지역 현안사업 논의

박남서 영주시장은 6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영주댐 조기준공 등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박남서 시장을 비롯한 송호준 부시장, 해당 사업실·국·과장이 참석해 △영주댐 조기준공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 △경상북도 종합재난안전체관련 건립 △영주 국가산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사업에 담당하는 국·과장과 함께 참석해 사업의 성격과 문제 해결방안을 꼼꼼히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 "영주시가 건의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현재 계획 중인 소백산 식도 사업은 충청북도 단양군과 연계해 추진하는 도 단위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남서 시장은 "영주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의 관심과 지원 약속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경북도와 영주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경북도립대학교, 스마트기술 업무협약 맞손

국토부 공모사업, 스마트기술 확산 사업 등 능동적으로 공동 대응



예천군은 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문·실증을 위해 스마트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석기 도시과장, 심태은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2023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비롯한 스마트기술 확산 사업에 능동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각종 사업 진행 시

예천군의 행정, 경북도립대학교의 교육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관내 유일한 대학교인 경북도립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스마트기술이 낱알이 발전함에 따라 거기에 발맞춰 군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릉군,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화와 관광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

문화부「문화가 있는날」/ 경북도「야간 관광상품」공모 2관왕 달성

울릉군이 문화관광체육부와 경상북도에서 공모 진행한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한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분야에 "한 점 섬 울릉도에 살거나"라는 명제로 5월~11월까지 울릉도 안에서 진행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모했으며 전국 55개 접수프로그램 중 최종 15개 선정에 당당히 선발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5월 울릉갯길에서 만나는 오키나와 역사해설을 시작으로 울릉도 학포 개척 역사문화제, 독도선상 음악회, 해설이 있는 망루 산책 숲속 작은 음악회, 울릉도 해남&해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너새너와일귀 놀이 한마당, 나리분지 야생화 사생대회, 어화(漁火) 동동 밤바다 문화공연으로 울릉도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요소를 결합된 품격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울릉군청과 울릉문화원, 울릉문화예술단체연합회, 울릉문화유산지킴이가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 구성과 기획, 공모 심사까지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서 울릉군 문화관광트렌드의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울릉군 '나리분지는 밤에 만나요'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야간관광상품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경상북도 야간관광상품은 매년 특색 있는 시군별 야간관광상품 공모를 통해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4개의 시군을 선정한다. 총 9개의 시군이 참가한 가운데 울릉군은 4개 시군 중 하나로 선정돼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울릉군은 '일몰부터 은하수까지'라는 주제로 자연 그대로의 관광자

원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울릉군만의 특색있는 야간관광상품을 기획했다.

주요 콘텐츠로는 별천지 나리분지에서 은하수 감상,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재(투막집) 야간 관람, 야간 산책, 야간 버스킹, 울릉도 특미를 활용한 야식 체험 등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야간관광명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대형 조형물 및 다양한 조명등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밤 시간대, 고요했던 울릉을 활성화시켜 지역 활기를 불어넣고 울릉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밤의 매력을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앞으로도 문화성, 여가성을 갖춘 다양한 야간관광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중/조감제기자



성동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새단장 마쳐



서울 성동구가 성동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를 새단장하여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행당동 소재 성동 4차산업혁명센터는 연면적 1,263㎡, 지상 2층 규모로 2017년 10월 개관했다. 국내 최대 드론 실내체험장을 갖추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는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견학 위주의 전시 공간을 소통형 체험공간으로 변경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약 100여개로 확대했으며 세분화된 구성으로 구민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특히 ▲가상현실(VR)존 ▲증강현실(AR)존 ▲로봇존 ▲드론존 ▲미래직업 체험존 등 총 6개로 구성된 체험 공간에서 새롭게 도입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드론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로봇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센터 이용시 학부모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1층 로비에 북카페를 새롭게 조성했다.

구는 시설개선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도 힘썼다. 일상회복에 발맞춰 온라인 위주에서 오프라인 체험형 수업으로 전환하여 센터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학교연계 및 학기제 SW·AI 캠프,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와 신청방법은 성동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우 성동구청장은 "성동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는 이번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구민에게 보다 새롭고 다양한 미래기술 체험의 경험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며, "앞으로 성동구는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및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데이터 인사이트(Insight)를 통한 영천시 대민서비스 비전 제시

영천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천시 맞춤형 데이터 분석 사업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설동수 영천시 부시장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용역수행업체인 주식회사 이엠엠정보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은 작년 11월 착수해 영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통계, 통신사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현안 해결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급성, 효과성, 중요성 등의 기준으로 4건의 분석과제를 선정했다.

분석과제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1인가구 생활 여건, 관광인구 이동패턴, 상권별 소비 데이터 분석으로, 현재 70% 과업이 진행됐다. 영천시는 이번 중간보고회로 실무

담당자들과 중간 산출물을 공유하고, 분야별 의견을 분석에 반영해, 각 분석과제에 맞는 현황 분석과 향후 예측을 통한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번 데이터 분석사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영천시의 데이터 분석 결과로 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반식/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소통·공감·현장' 행정 강조

제272회 임시회 앞서 1차 추경 시의원 설명 등 적극 소통 당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신뢰받는 시정 발전을 위해 '소통', '공감',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먼저 "2023년도 미편성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는 1차 추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제272회 임시회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라며 "사전에 시의원에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 등 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평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시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달 통장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국가통합하천 공모사업, 신청사 이전 문제 등 시정 현안을 설명해 드려려 했으나,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으로 인해 추진 못했다"면서 "이에 각 동별로 소통간담회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간담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사항 및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통장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회원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정에 관한 칭찬과 질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구청장과 실국소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소홀했던 민생 현장을 수시로 찾고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쳐달라"고 지시했다.

시민 불편사항과 역점사항, 집단민원 등 실국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 내 TF팀을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부 보고 시스템이 정착되어 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과 민원에 대해 소신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라는 것. 이 시장은 덧붙여 "동장 역시 주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동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면서 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는 시청과 구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작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양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위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행정의 척도를 나타내는 측면도 있는 만큼 부서마다 평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높빛 공직자'로 선정된 직원들을 격려했다. '높빛 공직자'는 매년 시정에 우수한 성과 창출 및 창의적인 생각과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직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2022년도 총 32건이 접수되어 1차 외부전문가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

진' 1건을 비롯해 우수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지난달 26일부터 8일간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도모하기 위해 독일 및 스페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이 시장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박람회인 MWC 현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 등 국내기관 인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독일 도르트문트에서는 신약개발 선도기업인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LDC)를 방문해 고양시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전략 방안을 모색했으며,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베르트 후버 박사 등 관계자를 만나 고양시가 서울에 인접한 가장 큰 도시로 기업유치와 해외투자의 매력적인 도시임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 3위 규모인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을 방문해 킨크스 제3전시장 건립 후 고양시 마이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세계한인무역협회 관계자(지회장 이은주)들을 만나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이끌어 냈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비상사태 선제 대응 체계 구축



안산시는 지난 7일 민·관·군·경·소방 등 관내 주요 기관장이 참여하는 2023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 주재로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응호 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민수 상록경찰서장, 이정용 안산소방서장, 양승필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과 국가정보원경기지부 수사관, 151방첩대장 등 12명의 통합방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신규 통합방위위원 위촉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추진 보고 ▲풍수해 재발 방지 및 예방 협력체계 강화 방안 논의 ▲각 기관별 통합방위 협의사항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등 각종 재난사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확보와 관련 피해 최소화 방안 등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보·재난환경의 변화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관·군·경이 함께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해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인천시, 하와이까지 가는 이민의 여정... '포와로 가는 길'

인천시, 시립박물관에서 13일부터 23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인천광역시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박물관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포와로 가는 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인 '포와로 가는 길'은 단체 프로그램으로 학급 또는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포와로 가는 길'은 하와이 이민의 역사프로그램과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한국 이민사 전반의 내용을 상설 전시를 통해 관람하고 하와이까지 가는 이민의 여정을 영상으로 시청하며 하와이 이민선 갤러리를 입체 퍼즐로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홈페이지

지(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 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 온라인 전시관(홍보)에 이민과 관련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 시민들이 한국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육은 중등·고등학생 학급별 또는 동아리 단위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매주 금요일에 교육을 진행한다.

김상열 시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은 "코로나19가 완화돼 박물관의 출입 및 교육이 용이해져 학업에 지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2023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포와로 가는 길] 신청안내

초기 8시간 이민에 대해서 알면越好! 이민선 갤러리 만들어보기

교육기간: 4월 13일 ~ 5월 30일 (매주 금요일) 주중 휴무

신청방법: 인천시 신청은 많음 | 문의: 032-440-4708

대상: 인천 시내 중·고등학생 | 신청기간: 3월 13일 ~ 3월 24일

한국이민사박물관

시흥시, 신년인사회 건의사항 대응보고회 개최 총 249건 접수

시흥시가 지난 8일 시청 글로벌센터1에서 2023 신년인사회 건의사항 대응 보고회를 갖고, 국별·동별 추진여부와 상황을 점검했다.

시흥시 신년인사회는 지난 2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19개동을 돌며 진행했다. 신년인사회는 한 해의 시작에서 임 시장이 시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며 시정의 영감을 얻고,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모인 시민 건의사항은 총 249건에 이른다. 특히 도로·교통, 녹지, 체육시설, 주차장,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된 안건은 역시 주차문제였다. 장현지구 A3 블록·장곡동 중심상가 인근 공영주차장(주차타워) 건립, 거모지구 조성시 구도심 주차 공간 확보 요청, 큰솔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요청 등 관련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 공간 확대 요구가 있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검토 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파손된 도로로 인한 시민불편도 신속하게 제거한다. 시민 직접 요청 구간은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는 우기 전 시설물과 배수로 준설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도 세심히 손본다. 조남1동 등 보수 건의가 있던 경로당 22개소에는 온수기 설치, 싱크대 교체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에 더해 시청·마을·소규모 아파트 경로당 109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인원에 비해 협소한 규모로 불편을 겪었던 하중2동 경로당은 임 시장이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오는 9월까지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한 매일을 위해 CCTV는 더 늘린다. 장현지구와 미산동 등 CCTV 취약지역에 총 316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 외 지역에도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흥시를 만든다. 개인 자원봉사 인정·보상 강화 및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꾀한다. 전국 최

초로 자원봉사 공동체 협업을 위한 공동체 거점공간 '공감'을 운영하고 신규 자원봉사단체 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체육시설 이용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산책로 환경 정비 등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별 장·단기적 계획 마련을 통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하중동 경로당 증축 관련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했다. 김상동 연성동장은 "어르신들께서 순번을 정해 식사를 하시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신년인사회를 통해 건의사항이 빠르게 반영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전했다.

임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의견은 현장감이 있어 매우 소중한다. 건의가 행정을 통해 반영되는 경험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원동력이 된다"며 "각 부서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동 중심 민원 대응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안성시-안성향교,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MOU 체결

김보라 시장 “안성시 문화유산 가치 알릴 수 있는 기회...가치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



안성시가 안성향교와 손잡고 향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이 탄생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시와 경기도향교재단 안성향교는 향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성시는 ▲향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의 ▲안성향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단 결성 및 관련 사업 협력 ▲등재 이후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활성화 및 상호협력 등 향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대상 향교는 전국 234개 향교 중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15개 향교다.

그 중 안성향교는 조선 중기 건축기법의 연구에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된 만큼 역사적 가치와 보존 가치가 뛰어나 지난 2020년 보물 제2091호(안성향교 대성전), 제2092호(안성향교 풍화루)로 지정된 바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기회는 안성향교에서 교육 활동 등을 통하여 전통을 잘 유지하고 명맥을 이어왔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시작을 안성시와 함께하여 안성시의 역사문화자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용문 안성향교 전교도 “조상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의 가치를 고고하고, 시와 활발하게 교류하여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도민과 첨단환경 기술의 만남” 현장 속으로

현장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기기업의 첨단환경 운영 기술 체험전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첨단환경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3 첨단환경 운영 기술 체험전’을 5월부터 10월까지 삼성전자 등 3개 사업장에서 총 3회 개최한다. 이번 체험전은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첨단환경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기기업의 첨단환경 시설의 체계적인 환경 오염물질 관리 운영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등 3개 회사와 협력해 진행한다. 체험전은 크게 ‘대기오염 방지 분야’와 ‘폐수처리 분야’로 구성했으며, 사업장 안전관리와 보안의 문제로 대기기업의 첨단 환경기술 운영 기술을 체험하기 어려운 도민이나, 영세한 사업장의 환경기술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전 일정은 ▲이천 SK하이닉스 5월 ▲화성 삼성전자 6월 ▲화성 기아 10월 등 총 3회 개최할 예정이며 모든 체험전 참여 인원은 현장 안전관리를 고려해 20여 명으로 제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체험전 참여 사업장별로 4월 7일까지 소속(업체명), 이름, 연락처 등 작성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도민과 영세사업장의 환경기술

인 등 환경 분야 종사자들이 체험전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 등 3개 사업장에서 실시한 첨단환경 운영 기술 체험전에는 66명이 참여했다. 삼성전

자는 반도체 생산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T-N(총질소) 농도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키는 고도처리시설 운영 기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90% 이상 저감시키는 기술을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계 현안 논의

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진 정담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양대노총과 집행부, 경기도의회 간 정기협의체 구성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이다. 최정명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아이·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간 요양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 약화와 열악한 처우로 기본생계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라며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처우개선비 지급, 적정근무시간 보장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상당이 꼭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법률지원센터가 제기



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민주 및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주요 노동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늘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

도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이번 정담회에서 전달받은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1년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학교 숲·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할 학교 교육청과 함께 찾는다

민선8기 도정 정책 방향에 맞는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맞춤형 홍보 추진

경기도는 학교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및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의 내년도 수요 확보를 위해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 숲 조성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 학습환경 개선,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한 숲 조성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764개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했다. 또한, 자녀안심 그린 숲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학습공간 조성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부천시 등 11개 시군에 19개소를 조성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숲 21개소와 자녀안심 그린 숲 1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시군 사업부서를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 대상이 일부 시군에 한정되거나 편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교육청을 통해 수요를 확보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각 교육청에 사업 안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으며 대략적인 수요가 파악되면 4월경 교육지원청과 지역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총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민선8기 도정 철학에 맞춰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적극적인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80교 안정적 시범운영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 본격화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교육청이 맞춤형 교육과 돌봄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80교를 시범 운영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형, 소규모 학교형, 지역사회 연계형, 일반학교형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운영하는 시범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방과후·늘봄지원센터의 인력 추가 배치 ▲지자체 협력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

교육감은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화성시 소재 송린초(학교장 오만영)를 방문해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관과 간담회로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 집중지원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운영의 다양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통합 컨설팅 등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아침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의 현장 안착 방안과 늘봄학교 운영의 어려운 점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송린초 오만영 교장은 “늘봄학교 운영으로 조기 초등학생에게 아침돌봄을 제공하고,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위한 면밀한 사전 준비와 수

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새학기 시작과 함께 송린초의 특색있는 초1 에듀케어,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다양한 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해주시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가 시작되며 현장의 의견을 듣는 첫 만남”이라며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하나가 되어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이 함께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늘봄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교육청-교육지원청-늘봄학교 간 업무지원체제를 구축하며 디지털과 연계한 교과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주말·방학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3일부터 접수. 올해 22개 시군 참여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지역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000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상·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3월 13일~4월 14일, 하반기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3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만 11세가 되는 2012년생은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2021~2022년에 지원받은 기존 신청자는 참여 시군에 주소 유지 시 재신청 없이 지원이 된다. 지원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금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생리는 개인적 보건위생 영역에서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의성군, 지역재생 사업현장 현장 지도 점검 실시



의성군은 김주수 군수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의성을 일대의 주요 지역재생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요 지역재생 사업장인 ▲의성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도시계획도로 ▲주거지주차장 ▲의성경찰서 후적지 사업현장 ▲도동리 간판개선 현장등을 둘러보며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살폈다.

이날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며,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의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사업추진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의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마련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을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이번 지역재생 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현장 방문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 모색하고, 역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우호교류협정 체결

아흐메드 리드완 카밀 서자바주지사 등 대표단 18명 경북도 방문



경북도는 8일 도청 사립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West Jawa)주 아흐메드 리드완 카밀 서자바주 주시사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며 양 지역 간 교류 의사를 다지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적교류, 경제·통상, 관광·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2018년 경북도와 서자바주 간 우호교류의향을 확인한 후 6년 간 이어진 꾸준한 교류협력사업의 결과로, 양 지역의 관계 격상을 의미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

투자유치 확대 및 협력지역 확대를 위해 방한한 리드완 카밀 주시사는 메타버스, 바이오,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신산업을 적극 선도하고 있는 경북도를 방문해 향후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

경북도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와 자매결연, 서자바주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자카르타 통상 사무소 운영, 인도네시아 4개 마을 새 마을 시범마을 운영, 인도네시아 지자체공무원 한국어초청연수사업 실시 등 꾸준히 대(對) 인도네시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세계 4대 인구 대국이자 최대 무슬림 국가로 현 정부의 중요 외교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꼽히고 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민·관·군 통합방위 역량 강화



청송군은 지난 3월 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통합방위 실태를 점검하고 각 기관·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2023년 화랑 훈련 준비상황보고 및 청송·영양대대 부대개편에 따른 토의가 이뤄졌다.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통합방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 시행하는 민방위 훈련을 비롯한 통합방위대세 확립시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인도네시아 포상공관단체 유치로 대구관광시장 다변화 모색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기업포상 단체관광객 60여 명 대구 방문



대구시와 (재)대구문화예술훈원 관광본부는 지난 3.4.(토)~3.5.(일), 인도네시아 도쿄오마린(Tokio Marine Insurance) 보험회사 우수사원들을 올해 첫 공식 해외 기업 포상 단체 관광객으로 맞이했다.

도쿄오마린은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다국적 보험 지주회사로서 전 세계 38개국에 지점을 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회사이다. 이 중 인도네시아 지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60여 명의 직원들이 포상공관으로 대구를 선택했다.

이번 일정은 3. 4.(토)~3. 5.(일), 1박 2일간 진행됐으며 대구의 주요 랜드마크 및 명소인 83타워, 서문 라시 등 방문했으며, 대구시 주최의 환영 만찬회를 인텔호텔에서 진행했다.

투어에 참여한 도쿄오마린 임직원 은 “지나해 임직원들과 열심히 노력

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어 올해 포상으로 대구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라며 “한국 방문은 물론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대구의 깨끗한 미래 도시 이미지와 전통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매력이 인상 깊어, 다음에는 가족들과 꼭 한번 방문하겠다”라며 말했다.

대구시와 문예진흥원 관광본부는 이번 인도네시아 기업포상 단체관광

객 유치를 시작으로 관광산업 회복세에 맞춰 중화권, 일본 등의 해외 현지 여행사와 관계자를 초청, 팜투어(사전답사여행)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학생교류단체 등 다국적, 다목적의 단체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산업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오미희 대구시 관광과장은 “특수목적관광은 일반 외국인 단체 관광 상품과는 달리 체류 기간이 길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장이다”라며 “국적별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유치 지원을 통해 특수목적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기업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약 600여 명이 대구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즐길 준비 됐나요~ 봉화청량산캠핑장 4월 1일 개장



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겨울철 운영을 멈췄던 봉화청량산 캠핑장이 봄장단을 마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선다고 밝혔다.

봉화청량산캠핑장은 약 14,000㎡의 면적에 카라반 7동, 데크 야영 14면, 쉼터 야영 14면을 갖추고 있으며 샤워장 2개동, 개수대 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개별 주차장 및 전기 공급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야영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돼 있다.

특히 캠핑장 인근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청량산박물관이 있고, 수려한 경관과 여러 등산로가 존재하는 청량산도립공원을 마주보고 있어 심신이 지쳐있는 가족 단위 캠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봉화군청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박천국 봉화군수는 “올해는 다양한 캠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램핑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캠핑문화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금수/기자

경주시,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도내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우수성과 △시민체감도 등 5대 항목, 16개 지표를 평가해 상위 30%의 73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다수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과 직결된 '국내 최초 봄철 서리피해 예방시스템 개발'과 '사계절 건조 생산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숙원을 해결한 창의적·적극적 행정으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낙영 시장은 “기존 관행을 탈피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한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포항시, 민·관·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머리 맞댔다!



포항시는 8일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불 예방 홍보 및 조기 진화를 위해 민·관·군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남일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초기부터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지난해 기계면에 설립된 경상북도 119 특수대응단에도 산불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진화 헬기 투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의 52%가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319명의 산불 진화인력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경계, 심각으로 상향될 시 전 직원의 1/6, 1/4를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

아울러, 산불 발생 시 경주시·영천시와 진화 헬기를 상호 지원해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원 수강생과 읍면동 이장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민·관·군 합동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없는 안전 도시 포항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전북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공모 선정

전북도는 8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로써 지난 6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이어, 이날 라이즈 시범지역까지 선정됨으로써 올해 교육부가 추진한 지자체와 관련된 가장 큰 공모에서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라이즈(RISE)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학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라이즈 시범 공모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신청하는 등 시·도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교육부는 관계자 연구, 산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자 9인으로 구성된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전북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

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RISE는 전북의 특화도가 높고 혁신기반 조성이 우수한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형지능형기계, 탄소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에 연계하여 4대 전략 및 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양성과 취창업,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민선8기 김관영지사의 핵심공약인 5대 대기업유치와 함께 청년이 떠나고 출생을 마저 최저인 전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역대로 활용 될 것이다

민선 8기 전라북도는 도-교육청-대학이 함께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교육전담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22.10)했으며 '대학협력팀'을 만

들어 여러 부서에서 나뉘어 추진되던 대학 업무를 일원화했다.

특히 지자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라이즈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 대학이 '대학협력관'을 도청에 파견하여 함께 근무하는 등 이 같은 협력 속에서 최근 RIS와 라이즈 공모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출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정비하여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대학관련 정책수립부터 지역혁신사업(RIS),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23년 상반기 내에 전북테크노파크에 전라북도 라이즈센터를 부설하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

립 기준에 의한 법인 신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5년 내에 TP로부터 법인을 분리하여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 계획('25~'29)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여 7월경에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라이즈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받아 글로벌 대학 육성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전라북도 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대학 지원사업을 지역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전북이 갖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심분 활용한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남원시는 8일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농업인 대표, 업무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예산신청(안)에 대해 예산신청 내용의 타당성, 농정방향과 적합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결했다.

위원들은 농업정책을 비롯한 농·유통·축산, 식량·원에·업 분과 위원회별 사업제안 실명과 심의를 거쳐

총 64개 사업, 총 1,625억원을 확정했다.

이번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3월 중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최종 사업이 확정된다.

남원시 농정과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의결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고창군, 음성 옆 판소리문화공간 '신재효판소리공원' 명칭확정



고창군 고창음성 옆 판소리문화공간이 '신재효판소리공원'으로 이름 붙여졌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음성 옆 판소리문화공간이 부분 완공돼 '신재효판소리공원'으로 이름을 확정했다.

군은 해당 시설에 적합한 명칭을 정하기 위해 지난달 전문가(정병현 속명여대 명예교수, 이훈상 동아대 명예교수, 이찬규 중앙대 교수)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신재효 판소리공원'으로 확정됐다.

'신재효판소리공원'은 판소리 관련 시설물을 통칭하는 명칭이며, '공원'은 누구나 동참하는 열린 공간임을 의미한다.

신재효판소리공원은 세미나실, 판

소리체험실, 판소리극음악, 야외공연장, 향우 행사장, 석가산, 정원 등을 추가적으로 재현할 예정이며, 각각의 개별 시설물은 문헌자료 등의 근거를 통해 별도의 적합한 명칭을 부여할 예정이다.

동리 신재효(申在孝, 1812~1884) 선생은 전북 고창의 부유한 중인출신으로 판소리를 집대성했으며, 판소리 후원자, 교육자, 이론가로 헌신한 인물이다.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 '판'에서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내는 우리의 문화로 세상에 전하는 모든 이야기는 판소리로 부를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판소리 중흥의 계승기반 구축과 판소리 대중화를 선도, 대한민국 판소리 성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세계유산도시에 걸맞는 수준높은 문화콘텐츠와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발달장애인들이 만드는 깨끗한 군산

군산시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이 깨끗한 군산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줍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줍깅'은 '줍는다'와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주변을 산책하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봄맞이 캠핑족들이 증가하여 많은 양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금강호 휴게소와 주변 캠핑장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수강생 20여 명이 참여해 지난 2일, 3일, 6일 3차례에 걸쳐 분리배출 교육 등 환경교육과 함께 실시했다.

참여 수강생은 "페트병을 비롯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가 있어 놀랐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며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해진 모습을 보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캠페인 참여 교사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차별 없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수강생들과 줍깅 캠페인을 통해 환경과 자원 재활용을 학습하는 뜻깊은 행사였으며 앞으로 발달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군, 2023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성료'

전국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음식점·숙소 등 소상공인 매출 향상

소프트테니스의 본고장인 순창군에서 열린 2023년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순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1일간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기 위한 선수들이 열전을 벌였으며, 순창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구장에서 진행된 이번 선발전은 각 지역의 유망주인 대학부와 일반부(실업팀) 200여 명의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결과 10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최종 선발 결과는 ▲남자복식 1위 순창군청 윤형욱·김병국, 2위 달성군청 이현수·김현수 ▲여자복식 1위 옥천군청 이수진·고은지, 2위 농림 문혜경, 임진아 등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인천전수촌에 입소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세계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며, 순창군 지역은 선발전이 개최됨에 따라 대회 자체의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대회전부터 선수들이 현지 적응



을 위해 순창을 방문함으로써 전지훈련 특수를 누리 숙박업소,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크게 올려 경제적 활성화를 배가시켰으며, 가장 권위 있는 전문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순창군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리게 됐다.

최영일 군수는 "우리나라를 빛낼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를 순창군에서 개최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순창군은 명실상부한 소프트테니스의 메카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프트테니스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인식/기자lis@hanmail.net

Z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하늘과 땅이 이곳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길: 영양국제자연문화관광길

물

영양호의 아름다움: 영양호수정원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국제자연문화관광길 별빛야경대

얼

시온의 대가: 영양국제자연문화관광길

맛

사백년을 이어온 밥의 레시피: 장계항의 음식다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시인의 영양연소정

간담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참벽공원, 축복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시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자연문화관광길 별빛야경대, 영양호수정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경남도, 3월의 '성과 우수공무원' 시상

종합청렴도 최상위 달성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한 3명 선발·포상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오전 개최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3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달의 성과 우수공무원'은 도민 제감 성과 향상을 위해 내·외부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도지사 표창과 성과급 우대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있다.

3월의 성과 우수공무원은 3명이다. 산업정책과 김민섭 주무관은 제조산업 육성 종합 플랜 수립, 조선·원전·방산 등 5개 산업 인력수급 부족문제 대책 마련, 중견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도입 확산 등 기업지원에 기여했다.

도시정책과 김종규 주무관은 전략적인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준비로 전국 최대 5개소, 총사업비 340억 원을 확보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용지 확대 공급 및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시범사업 추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감사위원회 손성훈 주무관은 청렴



한 공직문화 조성 및 부패 예방 기능 강화 등 4개 분야 21개 세부대책 수립·추진을 통해 광역 시도 중 종합청렴도 최상위 2등급을 달성함으로써 도민의 도정 신뢰도 회복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한 손성훈 주무관은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은 모두 함께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남도정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재현기자

동래구, 2023년 우수납세자 선정 및 시상

(의)상원의료재단(부산힘찬병원), 윤경석(한국한의원 원장) 수상 영예

부산 동래구는 지난 3월 2일 동래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동래구 우수납세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제57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아 최근 3년간 법인은 연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연 2백만 원 이상의 구세를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자 중에서 신청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법인과 개인 각 1명을 선정한다. 법인은 상원의료재단 부산힘찬병원, 개인은 윤경석 한국한의원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납세자에게는 표창패 및 우수

납세자증을 수여하며, 1년간 동래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성실납세와 자진 납세를 통해 구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여주시, 테이, 김성수, 신델라, 안승훈, 손홍주 홍보대사 위촉

가수 테이, '쿨' 김성수, 소프라노 신델라, 여주시 공연문화 활성화 큰 역할 기대

여주시는 3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충우 여주시장과 관련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수 테이와 혼성그룹 '쿨'의 리더 김성수, 소프라노 신델라, 배우 안승훈, 사진작가 손홍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다섯 명의 홍보대사들은 위촉 직후, 이충우 여주시장과 함께 '여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캠페인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가수 테이는 2004년 골든디스크 신인상을 수상하는 혜성과 같은 데뷔와 함께 이후 내놓은 앨범마다 가요 프로그램 최다 횟수 1위를 경신하는 발라드계의 황태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각종 방송 활동과 더불어 현재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루드릭' 출연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혼성그룹 누적 앨범 최다 판매량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가요계 전설의 그룹 '쿨'의 리더 겸 메인 래퍼인 김성수는 방송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예능인이기도 하다.

소프라노 가수 신델라는 청동 클래식 성악뿐 아니라 팝, 가요, 뮤지컬, OST에서 CCM까지 거침없는 크로스오버 뮤지션을 선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뮤직나눔 이사장으로 각종 음악 봉사에도 앞장 서고 있



'야인시대' 이화룡 역으로 유명한 배우 안승훈은 1983년 KBS 공채 텔런트로 데뷔한 이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연극, 뮤지컬 등에서 활동한 연기자다.

올 한 해 동안 담당하며 여주의 세계적과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 여주와 깊은 인연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공연 문화예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성과를 남기고 있는 테이, 김성수, 신델라, 안승훈, 손홍주님을 홍보대사로 모실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문화 관광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여주시의 홍보대사로서의 큰 역할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조광호 집배원, 다문화가족 집배 모니터링 유공 아산시장상 수상

조광호 아산우체국 집배원이 지난 2일 아산시청에서 다문화가족 집배 모니터링사업에 이바지한 공으로 아산시장상을 받았다.

조광호 집배원은 집배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월 1회 대상 가정을 방문해 생계 물품을 전달하고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집배 모니터링사업은 다문화·외국인 주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연계·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기관(아산시,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소방서, 아산우체국, 아산시 기초푸드뱅크, 아산시 가족센터)이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외국인과의 문화가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집배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증가

하는 취약·위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담양군, 올해의 '군민의 상', '명예군민증' 수상자는 누구?

담양군은 오는 5월 3일 제44회 담양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발전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는 '담양군민의 상'과 '담양군 명예군민증' 후보자 추천서를 이번 달 말까지 접수한다.

군민의 상 수여 후보자는 담양 출신이거나, 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내 거주자로 추천 분야는 지역개발·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진흥·산업경제 등 5개 분야별 1인 이내로 수여한다.

'명예 군민증'은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 등에 기여하며 담양군의 위상을 드높인 외국인, 해외교포, 다른 지역 출신 인사 등이 추천대상이며, 수여 인원 제한은 없다.

추천 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담양군의회 의장, 읍·면장, 각 기관단체장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세대주 10

인 이상(명예군민증-20세 이상 군민 중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군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숨은 주인공들을 찾아 지역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

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담양군민의 상은 1980년부터 수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125명이, 명예군민증 수여는 2004년부터 시작해 총 4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홍근기자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나 주 시

고향사랑기부제

NAJU 나주시 NAJU CITY

부산의 봄에 녹아들다, '부산시 봄꽃 지도' 제작

부산시, 관내 봄꽃 축제 및 꽃놀이 명소 등을 담은 지도 제작

부산시는 봄꽃 축제와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봄꽃 지도'를 제작하여 국내외 관광객들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 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부산시 축제 지도 '여기 어땠노?' 제작에 이어 올해는 계절 맞춤형 테마별 홍보를 기획하고 있다. 그 첫 단추로, 한 장의 지도에 부산의 봄을 담아 봄 여행을 떠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지도에는 부산 대표 봄축제는 물론 봄꽃 인생사진 명소와 인근 관광지 등이 모두 담겨 있어, 관광객들이 부산의 봄을 제대로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보따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봄꽃 축제로는 금정구 운산 일원(서곡초등학교~서동도서관)에서 개최되는 ▲금정구 운산 벚꽃축제(3.26.)를 시작으로, 강서구 대저생태공원-맥도생태공원에서 열리는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3.31.~4.2.3일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및 낙동제방에서 열리는 ▲삼락 벚꽃축제(4.1.), 유채꽃을 배경으로 강서구 대저 생태공원에서 개최되는 ▲부산낙



동강 유채꽃 축제(4.8.~4.16. 9일간) 등이 있다. 축제에는 개막행사를 비롯해 시민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거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만개한 벚꽃, 유채꽃과 함께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음, 봄꽃놀이 명소로는 벚꽃 터널길, 부산 바다와 어우러진 수선화, 툄림, 매화 등 알록달록한 꽃 인생 사진

명소 등이 있다. 주요 명소로는 ▲맥도 생태공원의 벚꽃터널, ▲검벚꽃이 만개한 부산민주공원, ▲황령산 벚꽃길, ▲매화가 만연한 평화공원, ▲수선화 및 유채꽃이 가득한 오록도 해맞이공원 등이 있다.

봄꽃 지도는 부산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부산시 공식 사회관계망(SNS)에서 만나볼 수 있다.

손태우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부산에서 봄꽃과 함께 펼쳐지는 바다, 강의 아름다움 풍경도 즐기면서, 부산의 봄을 온전히 느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해남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51개소 신규 선정 3년간 총 1,500만원 지원, 관내 159개소 으뜸마을 만들기 '박차'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해남군 51개 마을이 신규 으뜸마을로 선정됐다.

해남군은 이번 신규 마을 51개소와 함께 2년차 으뜸마을 62개소, 3년차 으뜸마을 46개소까지 총 159개소가 으뜸마을에 참여하게 됐다.

올해는 사업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진행 과정 중 사업비의 1/10 범위 내에서 간식비를 제공한다.

신규 마을은 2025년까지 3년간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매년 2~3개의 우수마을을 선정해 200만원의 추가 사업비

와 우수마을 현판을 수여한다. 한편 해남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상사업비는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발굴한 으뜸마을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으뜸마을 사업은 단순히 마을에 꽃나무를 심고 물주는 경관개선 사업이 아니라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해남군 515개 마을이 모두 으뜸마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광남기자



영주 소백산 철쭉 묘목,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키운다

철쭉 꽃나무 1만600주, 한국 식물복원 연구단지로 이관

영주시는 7일 한국 식물복원 연구단지(단산면 병산리 773번지 소재)에서 소백산국립공원과 영주시산악연맹 등이 참여해 소백산 철쭉 9년생 600여주를 옮겨 심는 이관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이관작업은 소백산 최고 자생 식물인 철쭉군락 규모가 날로 줄어들어 영주시농업기술센터가 소백산 연화봉과 비로봉 일대에서 채취한 철쭉 꽃나무 씨앗을 묘포장에서 키운 어린 철쭉 꽃나무를 한국식물복원연구단지 안으로 옮겨심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20년 소백산철쭉 자생 식물 복원-증식 및 품종등록 등 미래 한국 자생식물 생태계 복원 매개체로 조성 중인 한국식물복원연구단지 내 철쭉 1만주를 이관한데 이어 이날 추가로 실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소백산 철쭉 보존과 복원을 위해 비로봉과 연화봉의 철쭉 씨앗을 채종해 파종, 매



년 1000주 이상의 철쭉 묘를 생산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과 영주시산악연맹과 함께 소백산 저지대에서도 관광객들이 철쭉의 개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매년 식재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는 이상기후로 철쭉의 개화 시기에 만개한 철쭉의 수가 적었으나 올해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철쭉의 꽃말처럼 관광객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국망봉과 비로봉의 능선을 중심

으로 만개기 예상돼 5월 27일 개최되는 영주소백산철쭉제 기간에 소백산은 연분홍 빛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대일 영주시산악연맹 이사는 "훼손된 철쭉 자생지 복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소백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훨씬 풍성해진 소백산 철쭉꽃나무를 구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3월 추천 여행지 남원가볼만한곳]

3/10 재개장 어사와이어로 스트레스 풀고 남원에어레일로 힐링까지!

어느덧 추운 겨울을 지나 봄과 함께 3월이 찾아왔다. 여기에 최근 몇 년 만에 코로나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걱정 없이 따스한 봄 햇살을 즐기러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3월 추천 여행지 남원가볼만한곳이 있다. 작년 8월 말 개장한 따끈따끈한 신상 핫 플레이스인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등으로 유명한 전북 남원의 대표 체험형 관광 시설로 떠오르고 있는 어사와이어와 남원에어레일이다.

어사와이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산 뷰가 아닌 도심 뷰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질와이어, 질라인 시설로 78m 높이의 춘향타워에서 출발하여 남원의 고즈넉한 풍경과 도심 풍경을 내려다 보며 활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대 시속 80km로 활강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쾌감까지 만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차장 바로 옆에는 남원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부터 시작해 한복체험화인당, 한옥체험 남원예촌, 남원 대표 먹거리 추어탕을 맛볼 수 있는 추어탕거리 등이 위치해 있어 여행 코스를 세우기도 좋다.

어사와이어는 작년 12월부터 시작

된 동절기 휴장을 끝마치고 3/10일(금)에 재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여기에 지난 겨울에도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방문한 남원에어레일은 어사와이어와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이다.

남원에어레일은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최고 높이 11.2m의 레일을 따라 춘향테마파크,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남원항공우주추진문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남원관광단지 내 2.44km를 순환하는 관광 모노레일로 코스 곳곳 경사에서는 고급스러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스릴도 느낄 수 있지만 남원의 고즈넉한 전경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공중에서 산책하듯 힐링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남원에어레일도 어사와이어가 재개장하는 3/10일(금)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하여 운영된다.

1박 이상의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꿀팁이 있다면, 어사와이어, 남원에어레일 주변 남원예촌,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에서 숙박 시 1인당 2,000원 할인되는 쿠폰(최



대 4명까지 적용/어사와이어, 남원에어레일 각각 이용 가능)이 제공된다

는 점이다. 어사와이어, 남원에어레일 운영사인 남원테마파크(주) 관계자는 "그동안 어사와이어 동절기 휴장으로 인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3/10부터는 국내 최초의 도심 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재개장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남원에서 어사와이어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남원에어레일로 힐링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더 크게 들었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2023. 3. 9. (목) ~ 3. 14. (화) 6일간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https://council.yongin.go.kr>